

소극적 수용과 전략적 선택 : 공화당과 트럼프주의의 관계 설정*



배진석 (경상국립대)
(baejs1@gnu.ac.kr)

국문요약

전통적 보수주의의 파괴자이자 동시에 계승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트럼프주의를 파악하는 이 연구는 공화당이 극단적인 트럼프주의를 당의 주류로 수용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트럼프의 출현 과정에서 민주주의 정당에게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문지기 (gatekeeping)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이유는 다각도로 설명되어 왔지만, 이들 설명 중에서 이론적으로 충돌하거나 긴장상태인 지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공화당의 트럼프주의 수용을 정당의 제도적 취약성의 결과로 해석하는 입장과, 정당 지도부가 트럼프주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입장이 대별되고 있다. 정당의 제도적 취약성은 트럼프주의의 등장 조건을 만들었고,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은 그 조건 속에서 정당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주의는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로부터 급격한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재편되어 온 결과라는 점도 이 연구는 확인하고 있다. 결국 공화당의 트럼프 수용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쇠퇴를 의미하는 정당성의 위기이며,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 가능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정당 기능의 회복임을 의미한다.

주제어 : 트럼프주의, 공화당, 게이트키퍼, 엘리트

* 이 연구는 2021년도 경상국립대학교 학술진흥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I. 서론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확정은 미국 정치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포퓰리즘적 레토릭과 권위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정당 안팎의 기성 엘리트들과의 갈등은 미국 보수 정치는 물론 미국 정치 전반의 질서를 뒤흔들었다. 보수정당인 공화당의 입장에서 트럼프의 출현은 수용하기 힘든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트럼프를 명확하게 배제하지 않았고, 대신 다수의 엘리트는 수용 또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4년의 공백을 거친 후 2024년에 재선된 트럼프는 공화당의 기존 이념, 조직, 정치 전략을 트럼프주의로 재구성했다.

트럼프주의는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비판받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의 희귀한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태도나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비폭력 원칙을 포기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게이트키퍼 과정을 통해 걸러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레이건 행정부 이후 등장한 공화당의 전통적인 보수주의는 트럼프주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공화당은 트럼프주의를 수용하고 점차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 보수주의 정당인 공화당에 수용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갈래로 설명되어 왔다. 정당 조직의 약화와 통제력 상실이라는 원인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었다(Cohen et al. 2008; Azari 2024; Pierson 2017). 취약한 조직 및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공화당은 수동적으로 트럼프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공화당의 정치 엘리트들이 전략적으로 트럼프주의를 선택했다고 보는 설명도 있다(Skocpol and Hertel-Fernandez 2016; Levitsky and Ziblatt 2018). 공화당이 수동적으로 떠밀려서 트럼프주의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규범에 훼손이 있더라도 당파적 관점에서 권위주의 성향의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진보적 가치에 대한 백인 유권자들의 반발에 초점을 맞춰 문화적 반동으로 설명하는 논의도 있다 (Inglehart and Norris 2016). 정치적 엘리트와 일반 대중 간의 도덕적 이분법에 바탕을 둔 포퓰리즘에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의 위기의식이 반응했다는 설명이다.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로 트럼프의 부상을 설명하기도 한다(Klein 2020). 레거시 미디어의 약화와 함께 트위터 등의 미디어 환경 변화는 전통적 정책 경쟁보다는 정서적 호소와 인물 중심의 정치경쟁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설명은 개별적으로 설득력을 가진다. 다만 이들 설명 중에서 이론적으로 충돌하거나 긴장상태인 지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공화당의 트럼프주의

수용을 정당의 제도적 취약성의 결과로 해석하는 입장과, 정당 지도부가 트럼프주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입장이 대별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의 형식으로 이론적 긴장을 야기한다. 트럼프의 부상은 공화당이 본질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가? 혹은, 공화당 지도부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전략적 타협의 결과였는가? 또한, 트럼프주의는 공화당 정체성의 급격한 붕괴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공화당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이념적 변화의 귀결인가?

이 질문은 트럼프주의의 부상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 입장에 대한 해석에 따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전략과 전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크게 대별되는 두 갈래 설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트럼프주의의 성격과 정당의 게이트키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트럼프주의의 부상을 정당 약화론과 전략적 선택의 관점에서 점검한다. IV장에서는 III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트럼프주의의 확산을 전통적인 정당기능의 약화로 볼 것인지, 점진적 이념적 재편과정으로 볼 것인지로 확대해 논의한다. V장은 결론으로서 이론적 검토에서 확인한 점을 정리한다.

II. 이론적 논의: 트럼프주의와 정당의 문지기 역할

1. 트럼프주의

트럼프주의(Trumpism)는 전형적인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적 극단주의의 결합으로 설명되고 있다. 트럼프주의는 포퓰리즘의 요소들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다(Mudde and Kaltwasser 2017). 우선 ‘순수한 국민’과 ‘타락한 엘리트’ 간의 도덕적 이분법을 트럼프는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정치 엘리트들을 “부패한 워싱턴”으로 묘사하고, 기성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간주하며,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고위 관료, 정치인, 법관들을 “딥스테이트(deep state)”로 비판하며 부당한 방식으로 축출했다. 트럼프의 수사전략은 기성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증폭함으로써, 트럼프 자신만이 “진정한 미국인의 목소리”를,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를 대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Patenaude 2019). 이런 태도는 기성 정당, 의회, 언론을 모두 엘리트로 비판함으로써 대의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띠고 있다(Moynihan and Roberts 2021; Tanguay 2022).

반다원주의적 정체성 정치에 기반하고 있는 트럼프주의는 매우 배타적인 국민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백인, 기독교, 반 이민, 반 지식인 등에 기반한 특정 정체성의 집단적 불만을 정치화한다(Inglehart and Norris 2017). 트럼프의 담론 속에서 이민자는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를 암시한다. 트럼프주의는 다민족 사회에서 고립주의와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한다.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을 반영한 트럼프의 메시지와 정책은 정서적 차원에서 대중적 지지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특징을 보인다(Cremer 2023).

트럼프주의의 포퓰리즘적 특성은 대외정책에서도 확인되는데, 포퓰리즘적 민족주의와 잭슨주의(Jacksonian) 전통이 결합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Mead 2017). 주권의 절대성이나 경제민족주의, 다자협력에 대한 경시, 강압적 협상 전략 등이 그 특징으로 지적된다. 이런 흐름은 미국이 견지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되기도 한다(Ikenberry 2018). 배타적 국민개념에 기반한 트럼프주의는 '미국 우선'을 강조하며 글로벌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접근을 취한다. 그 결과 미국은 다수의 국제협정에서 탈퇴하고 보호무역 조치로 전 세계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Ettinger and Collins 2023), 점차 고립주의로 귀결되고 있다(Lin 2016). 트럼프의 민족주의적 '미국 우선' 정책은 미국 내 경제적 이득을 위한 규제완화로 이어졌는데, 특히 환경정책에 대한 규제완화는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로 발현되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Ofstehage et al. 2022).

트럼프의 포퓰리즘은 권위주의적인 극단주의와 결합되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레비츠키와 지블라트(Levitsky and Ziblatt 2018)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선거결과를 수용할 것, 반대 세력의 정당성을 인정할 것, 비폭력 원칙을 지킬 것, 법치주의를 존중할 것 등의 4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관찰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 중 최소한 세 가지 이상에서 반복적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위반했다. 2021년 1월 트럼프의 사주로 벌어진 국회의사당 난입은 트럼프의 극단주의가 가진 위험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라는 민주적 규범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이었기 때문이다(Martin and Burns 2023).

그렇다면 트럼프주의는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와 얼마나 다른가? 우선 전통적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는 자유시장경제, 규제완화, 자유무역에 바탕을 둔 국제주의적 외교정책 등을 핵심으로 삼아왔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 이후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기치로 국가역할의 축소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제도화되었다. 트럼프주의는 레이건 이후 공화당의 보수주의와 뚜렷한 차별점을 갖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유시장주의, 규제완화, 세계화의 수용 등으로 특징지어진 전통적 보수세력의 경제정책은 보호무역, 산업정책

의 부활, 반세계화 등으로 전환되었다.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의 패권 유지에 중점을 두던 외교정책 역시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 정책으로 바뀌었다(Blum and Parker, 2019). 법 질서 내에서 제한적 수용을 허용했던 이민정책은 정체성 정치에 바탕을 둔 반이민 정책으로 급변했다. 그 결과 개인중시, 자유시장경제, 자유무역 및 국제협력 등에 바탕을 둔 공화당의 보수주의는 정체성과 국가주의 중심의 보수주의로 재편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Keser et al. 2023). 실제로 2024년 공화당 전당대회는 전통적인 보수강령을 삭제하고 경제 포퓰리즘과 국가주의 성향의 새 정체성을 공식화했다(Politico 2024).

트럼프주의는 전통적 보수주의와 차별점이 뚜렷하지만, 연속성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트럼프주의는 경제적 보수주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는 보수 유권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공화당의 기존 보수주의 원칙과 다르지 않다(Amira 2022; Hollis-Brusky 2024). 트럼프주의를 금권적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Pierson 2017). 문화적 정체성 기반 이슈를 통해 대중적 분노, 반 이민 정서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주의는 포퓰리즘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 대기업과 경제 엘리트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것이다. 전통을 강조하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트럼프주의는 전통적 보수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기독교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정체성 보호, 가족 중심의 가치는 미국의 보수주의 성향 지지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O'Hara 2020; Cremer 2023). 미국 우선 중심의 외교정책 역시 주권을 강조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기존 보수주의 외교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도 있다(Amira 2022).

살펴본 바와 같이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결합된 트럼프주의는 공화당의 기존 보수주의적 전통과 명확히 구별된다. 동시에 트럼프주의는 2016년에 돌발적으로 출현한 정치현상이 아니라 기존 보수주의 전통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 변화와 연속성은 논문 후반부에서 다루게 될 공화당의 트럼프주의 수용에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정당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정당은 시민과 국가를 매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해 가장 적합한 후보를 정당의 브랜드로 유권자에게 제시한다. 동시에 정당은 입법과 행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함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은 민주주의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극단주의 정치세력의 정치권 진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른바 문지기(gatekeeper)의 역할이다.

첫째,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정당은 극단주의 성향의 후보를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당 내부에 후보자 선정 과정의 엄격한 절차를 갖추므로써, 정당은 극단적 성향의 후보가 정당을 대표할 수 없도록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공약과 거리가 있는 후보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Merrill and Grofman 2019; Hall and Thompson 2018). 둘째, 정당은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극단적인 정책공약을 배제한다. 다수 유권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당은 결과적으로 극단적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한다(Fatke 2014; Kölln 2014). 셋째, 정당은 정당간 연합을 통해서 극단주의적 정치세력의 확장을 억제하기도 한다(Qerimi 2016).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은 후보선출과 정책제안, 그리고 정당간 연합을 통해 극단주의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어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역할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다(Hall and Thompson 2018).

미국 정당 시스템은 이런 문지기 역할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단 대통령제 자체의 특성과 관련된 정당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른바 정파적 외부자와 관련된 문제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득표를 극대화해야 하는 정당에게 더 필요한 대통령 후보의 자질은 의원내각제에서 총리에게 요구되는 정당 이념이나 당내 갈등 조정능력이 아니다. 오히려 초당파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정당 외부의 인사를 영입할 경우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당의 득표 극대화 전략은 정책선거와 점점 멀어지고, 책임정당정부(responsible party government)는 대통령제에서 달성하기 더 힘든 과제가 된다(Samuels and Shugart 2010). 정당의 대리인으로서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 이후 집권당 관계에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주인-대리인 관계는 역전된다. 따라서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파적 외부자 후보를 정당이 필터링을 하기는 매우 쉽지 않게 된다.

이 밖에도 오픈 프라이머리 등 예비선거 중심의 공천 구조는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개별 후보의 인지도나 미디어 활용 능력이 후보 공천과 선거 당선에 더 큰 힘을 갖게 된다(Cohen et al. 2008). 게다가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고착해 정당의 브랜드 관리가 중요해지지만, 정당 브랜드보다는 후보 중심의 경쟁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당 지도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Cox 1997; Carey and Shugart 1995). 또한 정당 외부에서도 후원자, 언론, 활동가, 싱크탱크 등의 네트워크가 조직 바깥에서

힘을 발휘함에 따라 정당 내부의 제도적 통제력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Azari 2024). 결국 정당이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극단적 세력을 배제하는 문지기 역할은 미국 정당에서 기대하기 쉽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트럼프와 같은 특이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이 공화당을 장악하게 될 수 있었다.

Ⅲ. 트럼프주의의 부상: 정당 약화 vs. 전략적 선택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 지명은 당내 체계적 검증이 결여된 채 여론에 휘둘린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2016년 공화당 경선 초기, 트럼프는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켈리 안더슨 등 다수 주류 후보들과 경쟁하였다. 당내 전통적 엘리트들은 ‘Never Trump’ 운동을 조직하며 그의 지명을 막으려 했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구조와 후보 중심의 미디어 노출, 그리고 극우 미디어의 비호 속에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Fox News와 Breitbart는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며, 전통 미디어의 비판적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세우는 프레임 전략을 정착시켰다.

아이오와주에서 초반에 승리를 거둬 승산이 높았던 테드 크루즈는 트럼프의 전술에 굴복했다. 크루즈는 트럼프의 의도적인 조롱과 공격적 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루비오 역시 토론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다가 호소력도 부족해 지지를 확장하지 못했다. 켈리 안더슨 역시 ‘기성 정치인의 대표적 인사’라는 낙인이 찍혀 중도 탈락했다. 그 결과 경선은 ‘엘리트 대 엘리트’가 아닌 ‘기성 정치권 대 아웃사이드’의 구도로 흘러갔고, 트럼프는 반엘리트를 강조하는 언술로 강력한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의 돌풍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내부 통제와 조율의 실패로 역부족이었다.

반 트럼프 진영에 참여했던 공화당 내 인사들은 크게 세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현재까지 일관되게 반 트럼프 입장을 유지하는 그룹이다. 반 트럼프 캠페인으로 중도 및 온건 공화당 유권자를 설득해온 사라 롱웰, 공화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유타주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했던 에반 맥멀린, 당 지도부에서 축출된 이후에도 반 트럼프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린다 체니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2016년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직후에 잠시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2018년 사망 때까지 반 트럼프 입장을 바꾸지 않았던 존 매케인도 이 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의 당내 영향력은 매우 축소되었거나, 탈당 후 무소속이나 시민운동 형태로 활동 영역이 변경되었지만, 트럼프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의 복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반 트럼프 진영에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비판을 줄이거나 중립적 입장으로 전환한 이들이 두 번째 그룹이다. 하원의장을 역임했던 폴 라이언이 대표적이다.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공화당 내 서열 1위로 평가받던 폴 라이언은 트럼프 지지와 지지 철회를 거듭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2018년 중간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폴 라이언은 2024년 대선 때에도 중립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지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했던 마르코 루비오와 테드 크루즈는 경선 당시 트럼프를 격렬하게 비판했으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적극적 지지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협력관계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 트럼프 진영에서 적극적 지지로 변화한 공화당 내 인사들도 있다. 린지 그레이엄, 케빈 매카시, 론 드샌티스 등은 지지층 압박에 따라 권력 유지를 위해 트럼프 지지로 노선을 확실히 굳힌 인사들로 평가받는다.

1. 정당 약화론

예상과 달리 공화당이 트럼프를 수용한 것은 정당의 제도적 취약성의 결과라는 분석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정당 지도부의 정치적 역할이 분명하고 당내 기울기 강한 상태였다면,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와 한참 거리가 있는 트럼프는 공화당을 장악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Cohen et al. 2016; MacWilliams 2016; Pierson 2017). 트럼프의 부상이 현실화되었을 때, 공화당은 실제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1970년대에 개정한 예비선거 중심의 후보 지명제도는 정당의 게이트키퍼 기능을 약화시켰다. 조직을 갖추고 이념적으로 무장된 예비 후보보다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예비 후보가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정치의 미디어화 현상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켰다. 피어슨은 미국 정당제도가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 정치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임을 지적했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중심의 의회 선거제도는 정당이나 정책보다 후보자가 더 주목받게 되고,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당의 약한 기울은 게이트키퍼 기능도 함께 약화시킴으로써 정당의 통제력은 점차 약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같은 정파적 외부자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 공화당은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었다(Popkin 2020). 트럼프를 통제할 만큼 정당의 조정능력이 발휘되지 못했고, 그 결과 반트럼프 연대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환경에서 당 기구를 우회하거나 당의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었다.

2. 전략적 선택론

반면 트럼프의 부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당의 제도적 취약성 때문이 아니라, 공화당 정치 엘리트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분석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 (Espinoza 2021; Barber and Pope 2019).

이 입장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과 당내외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수단으로 인식했다. 트럼프의 견해와 태도는 당내외 엘리트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은 트럼프를 통해 감세, 규제완화, 사법부 장악 등과 같은 공화당의 핵심 아젠다를 구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불화를 빚었던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당선 이후 대통령과 협력 관계를 본격화한다. 미치 매키널 상원 원내대표는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2017년 세제개혁법 통과를 계기로 트럼프와 노선을 맞추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일련의 보수개혁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연방대법원 보수화라는 핵심 의제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본격화했다(Levitsky and Ziblatt 2018). 2017년 닐 고서치, 2018년 브렛 캐버노, 2020년 에이미 코니 배럿 등의 보수 성향 인사들이 연방대법관으로 진출할 때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비록 불편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엘리트들은 감세, 규제완화, 법원 보수화 등의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트럼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를 성과로 삼아 유권자에게 자신들의 능력을 소구했다. 다시 말해 제도적 취약성으로 무력하게 트럼프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이 계산된 전략적 선택으로서 트럼프를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3. 정당 약화론의 관점에서 본 전략적 선택론

전략적 선택론은 공화당 엘리트들이 수동적으로 트럼프의 부상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엘리트들이 의식적으로 전략적 계산을 통해 트럼프를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앞서 살펴본 정당 약화 이론의 관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첫째, 전략적 선택론은 엘리트의 자율성과 조정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정당 개혁과 예비선거의 확대는 후보자에 대한 정당 지도부의 통제력을 약화시켰다(Cohen et al. 2008). 미디어와 여론 중심의 정치 환경은 조직보다 인물을 선호하게 만들었다(Cox 1997; Carey and Shugart 1995). 중앙당의 조정 능력이 약화된 공화당은 트럼프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엘리트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전략적 선택론은 반 트럼프 연대라는 엘리트 간 조정의 실패를 전략의 부재로 해석하는 반면, 정당 약화 이론은 이러한 실패를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파악한다. 공화당은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당내에는 티파티 운동과 기독교 우파 등 다양한 정파가 경쟁 중이었다(Levitsky and Ziblatt 2018). 후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선거운동 양상과 슈퍼팩(Super Political Action Committee)을 경유하는 외부 정치자금의 유입은 당내 엘리트간 협력의 가능성을 낮추었다. 결국 반 트럼프 연대는 성사되지 못했고, 이는 전략의 부재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공화당 엘리트들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적응한 것일 수 있다. 많은 엘리트들의 '전략적 선택'은 실상 트럼프가 대세가 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후적 적응일 수 있다. 트럼프가 명백한 선두주자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지지는 사전에 이루어진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 현실을 수용하려는 정치적 적응이었다. 이를 전략 혹은 선택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당시의 권력 관계를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넷째, 전략적 선택론은 대중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정당 엘리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트가 기층 지지층에 의해 포획된 것은 아닌가? 예비선거 시스템, 극우 성향의 미디어 환경, 소셜 미디어 기반의 정치 동원은 대중이 엘리트를 직접 제재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다(Cohen et al. 2008; Klein 2020). 많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의 수용 외에 대안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략적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트럼프에 반대할 경우 당할 수 있는 정치적 보복에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 반응이 트럼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 약화론의 관점에서 전략적 선택론은 설명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당 조직의 붕괴, 조정 기능의 약화, 후보자 중심 정치의 부상은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엘리트 행동에 대한 제약이다. 따라서 트럼프주의의 부상은 단순히 엘리트 차원의 실패라기보다는 정당 제도의 붕괴와 이로 인한 행위자들의 선택이 제약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정당이 게이트키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엘리트들의 전략이 제한되고 때로는 대중의 압력에 굴복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정당의 쇠퇴와 민주주의의 후퇴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 전략적 선택론이 간과하고 있는 구조적 조건과 제도적 제약은 정당 약화론의 시각으로 보완될 수밖에 없다.

4. 전략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정당 약화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 약화론은 공화당의 제도적 무능과 게이트키퍼 기능의 붕괴가 트럼프주의의 부상 원인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전략적 선택론 관점에서는 정당 약화론의 설명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정당 약화론은 엘리트들의 전략적 행동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공화당 정치 엘리트들은 단순히 구조에 갇힌 수동적 행위자가 아니라 변화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과 2016년 초에 당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일부 주류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해 경쟁 가능한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2015년 하반기 경선 초기에는 코크 네트워크 및 월가의 공화당 대형 후원자들이 켈시 캠프에 결집했으나, 지지율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철회한다. 2016년 연초에는 마르코 루비오와 테드 크루즈가 트럼프 저지를 위한 카드로 각각 거론되면서 공화당 내 기존 세력들의 관심을 모았다¹⁾. 인디애나 경선 패배 이후 테드 크루즈가 후보를 사퇴하고, 온건파의 대안이었던 존 케이식마저 경선을 포기한 이후에야 사실상 트럼프에 대항할 대안 후보가 종식되었다. 다시 말해 공화당 내 기존 엘리트들은 반 트럼프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하면서 대안들을 모색해왔다. 따라서 제도적 취약성 때문에 정당이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식의 설명은 이런 내부 동학을 설명할 수 없다.

둘째, 구조적 제약만으로는 트럼프의 부상과 공화당의 수용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다. 동일한 제도적 조건에서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 언론은 트럼프와 협력하는 쪽을 선택했다. 특히 상원과 하원의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비판보다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감세나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강화 등의 정책 목표를 이루고자 했다(Levitsky and Ziblatt 2018). 정당 약화론으로는 이런 정책적 계산과 전략적 선택을 설명하기 힘들다.

셋째, 정당 약화론은 제도적 붕괴의 원인을 보수주의의 점진적 변화와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분위기의 변화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당은 변화된 환경을 단지 반영하는 조직만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당은 지지층의 확장을 위해 연대의 대상을 변화시켜 왔으며, 엘리트들은 이 변화에 대응해 이념적, 정치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능동성을 발휘했다. 트럼프는 유권자들이 느끼는 분노와 불만을 반 엘리트 정서로 집약해 정치적 자원으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공화당의 이념적 구성원들이 보다 극단적인

1)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6/01/the-great-republican-revolt/419118/>
(검색일: 2025. 07. 11.).

성향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Galvin, 2020). 이 점에서 트럼프주의는 과거 전통적 보수주의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 진행되어 온 반 엘리트 정서와 정체성 정치의 발현이자 이런 흐름을 전략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Slaughter 2019).

넷째, 트럼프와 공화당 엘리트 간의 관계는 일방의 수용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거래에 바탕을 둔 동맹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트럼프는 정치 엘리트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정책도 양보받지만, 대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이들에게 제공한다. 트럼프에게는 정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유권자 동원과 충성도 높은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이다(Jacobson and Liu 2019). 이러한 거래는 전형적인 전략적 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정당 약화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화당의 변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트럼프의 부상은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실제 2008년 이후 공화당 내 우파 이념이 강화되었고, 오바마 행정부를 겪으면서 이념 변화는 또 요동을 쳤고, 결정적으로 티파티 운동이 확산되면서 형성된 중장기적 변화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Cowburn and Theriault 2024). 공화당의 게이트키퍼 기능의 실패로 이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당 약화론이 트럼프주의의 등장을 정당의 제도적 취약성이라는 다소 고정된 시각에서 찾고 있다면, 전략적 선택론은 오히려 이념적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 전략적으로 행동한 엘리트들의 역할에 더 주목한다. 이들 역시 정당의 약화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에게 정당은 붕괴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정치 엘리트의 책임과 역할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IV. 트럼프주의의 확산: 단절 vs. 점진적 재편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공화당은 ‘트럼프화’되었다. 공화당의 조직 방식, 강령, 후보자 공천 방식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극적으로 변화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에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진행해왔던 당 강령 작성을 생략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를 공화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이는 당 강령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에 종속시킨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 인적 변화도 감지되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대부분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포퓰리즘적 태도에 동조하는 이들이었다. 오하이오주 상원에 당선된 제이디 밴스,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에 당선된 테드 버드, 애리조나 하원에 당선된 엘리 크레인, 조지아 하원에 당선된 릭 앨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주장하기도 했다²⁾. 이들의 위험성은 미국민주주의 근간인 자유선거 원칙에 위협을 가하는 것에서도 확인되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선거인단 구성과 투표 절차에 개입하려는 입법 시도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하기 직전에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전통적인 레이건식 자유 시장 보수주의보다 보호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가 공식화되었다. 트럼프의 개인적 카리스마와 문화 전쟁 중심으로 공화당의 정체성이 재편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공화당’(New GOP)의 탄생으로 규정됐다(Politico 2024). 이러한 변화는 공화당이 단순히 트럼프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그의 정치 스타일을 중심으로 공화당이 제도적으로 ‘트럼프화’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공화당은 트럼프주의의 등장과 확산을 통해 이전의 공화당과 단절되었는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인가?

1. 단절론

내부 조정능력을 상실하면서 책임정당으로서의 제도적 기능이 붕괴된 결과 공화당은 이전과 구별되는 경로에 들었다는 분석이 있다(Popkin 2020). 팝킨은 “강력한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제도적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본다. 그의 관점에서는 권력분점을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정당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의한 일인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퇴행이었다.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정당의 고유한 기능이 붕괴되어 과거와 단절되었다고 보는 시각은 간결하기는 하나, 변화한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정당 기능의 붕괴에 기반한 단절론은 효과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공화당이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 지도자를 초대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은 다소 정태적인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당은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해 나가는 동태적 모습으로 관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단절론이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화당은 기존에 해오던 정당의 기능을 포기했는가? 공화당은 게이트키퍼와 같은 제도적 기능을 구조적으로 재조정했는지 그동안 해오던 이익 집결과 표출 등

2) UCLA Promise Institute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229명의 부정선거 주장자(Election Deniers)를 밝힌 바 있다. https://law.ucla.edu/sites/default/files/PDFs/ICLP/Summar-List-of-Election-Deniers-and-Skeptics-Elected-to-Office-During-the-2022-U.S.-Midterms.pdf?_gl=1*1q6ex4q*_up*MQ..*_ga*MjExNDEzNTE0LjE3NTYyOTY5MTE.*_ga_LH03WX2T8B*cZ3NTYyOTY5MTAkBzEkZzEkdDE3NTYyOTY5MzYkajM0JGwwJGgw (검색일: 2025. 07. 15.).

정당의 고유한 기능을 정지 혹은 마비시켰다고 보기 힘들다. 트럼프 등장 이후에도 공화당은 지지자들의 선호에 부응해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사법부 인사를 당파적 이익에 맞게 단행했으며, 감세에 기반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Amira 2022). 공화당은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을 재배열하고 있다. 특정 영역에서 정당의 기능이 일부 약화되었지만, 또 다른 기능은 강화되었다. 공화당 지지세력의 핵심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 정당은 고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한 정치 연합이다. 공화당은 전통적인 자유시장 중심의 보수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Blum and Parker 2019). 트럼프주의는 대중적인 반엘리트 정서와 정체성 정치를 기반으로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붕괴나 단절이기보다 재편에 가깝다.

셋째, 단절론은 공화당 엘리트의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단절론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의 등장을 묵인하거나 협력한 것은 취약한 제도 탓이다(Cohen et al. 2016; MacWilliams 2016). 이때 엘리트의 책임은 실종된다. 따라서 구조적 차원으로 문제의 원인을 고정하게 되면 정치 엘리트의 책임을 묻기 힘들게 된다.

넷째, 단절론은 트럼프의 등장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게 한다. 공화당 주류 엘리트 관점에서 트럼프는 정파적 외부자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민주당 출신은 아니다. 공화당 질서 내에서 후보 자리에 오르고 공화당에 의해 수용된 정치인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주의 역시 정당 내부의 이념적 변화와 적응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외부 충격만으로도 이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단절론은 트럼프주의 등장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다만 이 현상의 복합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의 전략과 이념적 재편과정을 두루 포함해야 한다. 정당은 유권자의 선호 변화와 이에 따른 이념적 진화에 적응해 나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2. 점진적 재편론

일군의 연구자들은 트럼프주의를 기존 공화당의 보수주의와 단절된 급격한 붕괴로 보지 않는다(Miller and Schofield 2008; Espinoza 2021). 공화당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이념적 분화와 재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공화당은 인종, 종교, 문화 차원에서 이념적 분화를 겪어 왔고, 반세계화, 반엘리트 정서에 기반한 이념적 재편을 경험하는 중이다. 티파티 운동, 기독교 우파의 부상 등과 같은 특이사항들도 모두 트럼프 이전에 존재했던 흐름들이다. 트럼프는 단지 이를 보다 노골적이고 권위주의적

으로 표현한 인물일 뿐이다. 트럼프라는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와 태도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 크게 요동친다는 것은 공화당의 제도화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직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의 정당 제도화가 문화적 적대감에 기반해 정당의 이념을 재편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기도 하다.

트럼프주의를 기존 공화당의 보수주의 이념이 점진적으로 재편된 결과라는 주장을 정당제도와 조직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우선, 점진적 재편론은 정당을 단순한 사회적 반영물로 본다는 한계를 지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은 외부 흐름을 그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념을 선택하고 조정하는 정치 행위자다. 티파티 운동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공화당은 2000년대 이후 티파티 운동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티파티 운동의 당내 유입을 억제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흡수한 것이다(Karpowitz et al, 2011).

둘째, 점진적 재편론은 트럼프주의와 전통적 공화당 보수주의 간의 질적 차이에 둔감하다는 약점을 가진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의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기성 언론을 혐오하는 트럼프의 정치행태를 기존 공화당의 정치행태와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Martin and Burns 2023).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자유시장주의, 동맹 중시 등을 중시한 기존 공화당의 보수주의에서 트럼프주의는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점진적 재편론은 민주주의 퇴행과 관련된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묻기 힘든 한계를 가진다. 민주주의 퇴행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가 취한 침묵과 협력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다. 구조를 핑계로 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공화당의 주류가 된 트럼프주의는 기존 보수주의의 점진적 재편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공화당은 능동적으로 선택했고, 조직을 변화시켰으며, 당연히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함께 부과된다.

V. 결론

트럼프주의의 부상에 대한 정당 약화론과 전략적 선택론 사이에는 이론적 충돌 및 긴장이 존재한다. 두 이론 모두 각각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일방적으로 적용할 때 직면하는 설명력의 한계도 분명하다.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트럼프의 공화당 장악은 단일 원인보다는 구조적 제약과 전략적 행동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 약화론은 공화당의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트럼프와 같은 파격적인 인물이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천 제도의 변화, 당 조직의 조정능력 약화, 미디어 중심의 정치 환경 등이 트럼프의 부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 자체도 설명력 차원에서 한계는 명확하다. 트럼프라는 인물이 특정한 시점에 공화당을 장악하게 된 이유는 정당 약화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동일한 제도적 환경에서 다른 선택도 엄연히 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당 약화론과는 대조적으로 전략적 선택론은 트럼프를 수용한 공화당 엘리트들의 계산과 적응,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집중한다. 그 결과 대선 이후 공화당 내 전략적 동맹 형성, 입법 전략, 사법부 보수화 등이 이 이론적 틀로 설명된다. 동시에 전략적 선택론은 엘리트의 자율성과 역량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구조적 제약과 대중의 압력을 간과할 위험도 병존한다. 사실상 엘리트의 선택은 제한 없이 자유로운 결정이라기보다는 제도와 여론의 틀 안에서 제약된 전략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평면적으로는 이 두 관점이 상호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정당 변화의 여러 국면 중 각각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제도적 취약성은 트럼프주의의 등장 조건을 만들었고,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은 그 조건 속에서 정당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주의는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로부터 급격한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재편되어 온 결과라는 점도 이 연구는 확인하고 있다. 이 평가를 종합하자면, 트럼프주의는 정당의 제도적 약화,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이념적 재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관찰되는 정치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이후 공화당의 방향성과 민주주의의 복구를 논할 때에도 이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적 접근법은 정당 단절론과 이념적 재편론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단절론은 정당의 게이트키퍼 기능의 약화로 트럼프주의가 부상했음을 주장하고, 이념적 재편론은 정당 내부의 이념적 긴장과 문화적 재조정이 트럼프주의 발생의 원인임을 강조한다. 전자는 행위자로서 정당의 선택을 간과할 위험성과 함께 책임 소재를 구조로 환원하는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후자는 제도적 제약과 이에 영향을 받는 갈등의 다차원적 모습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결국 이들 관점 역시 경쟁구도로 설정하기보다 정당의 변화를 설명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접근할 때 이론적 유의성이 배가된다. 트럼프주의를 단일한 원인과 시각으로 해석할 때, 트럼프 이후 정당의 제도적 복원에 대한 논의도 협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주의를 당내 주류 관점으로 수용한 것은 단순히 정당 내 권력구조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책임성과 규범적 가치에 기반을 두었던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폭력적 방식으로

의회에 난입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트럼프주의는 여전히 공화당의 핵심적 지위를 잃지 않고 있다.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거짓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공화당의 현실은 민주주의의 문지기 역할을 포기한 채 권력획득과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정당정치에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화당의 트럼프 수용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쇠퇴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정합성의 위기를 드러내며,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 가능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정당의 기능적 복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트럼프주의의 등장은 단일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 현상임이 명확해진다. 본 연구는 트럼프의 공화당 장악을 단순한 제도적 실패나 전략적 연합이 아닌, 정당의 이중적 성격-제도적 플랫폼과 이념적 연합체-가 동시에 재편된 결과임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주의 간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정당이 반체제 세력에 포획당하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민주주의 위기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 Amira, K. 2022. Donald Trump's effect on who is considered conservative. *American Politics Research*, 50(5), 682-693.
- Azari, J. 2024. Weak parties, strong partisanship. *The Making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s*.
- Barber, M., & Pope, J. C. 2019. Does party trump ideology? Disentangling party and ideology in Americ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3(1), 38-54.
- Blum, R., & Parker, S. 2019. America First and the crisis of multilateralism. *Foreign Affairs*, 98(2), 18-26.
- Carey, J. M., & Shugart, M. S. 1995. Incentives to cultivate a personal vote: A rank ordering of electoral formulas. *Electoral Studies*, 14(4), 417-439.
- Cohen, M., Karol, D., Noel, H., & Zaller, J. 2008. *The party decides: Presidential nominations before and after refor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wburn, M., & Theriault, S. (2025). Preventative polarization: Republican Senators' positional adaptation in the Tea Party era. *American Politics Research*, 53(2), 125-139.
- Cox, G. W. 1997.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emer, T. 2023. A Europeanisation of American politics?. *Journal of Language and Politics*, 22(3), 396-414.
- Espinoza, M. 2021. Donald Trump's Impact on the Republican Party. *Policy Studies*, 42, 563-579.
- Ettinger, A. and Collins, A. M. 2023. Trumpism and the rejection of global climate governance. *International Relations*, 39(1), 76-100.
- Fatke, M. 2014. Allure or alternative? direct democracy and party identification. *Party Politics*, 20(2), 248-260.
- Hall, A. B. and Thompson, D. M. 2018. Who punishes extremist nominees? candidate ideology and turning out the base in us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2(3), 509-524.

- Hollis-Brusky, A. 2024. Making fusionism great again: authoritarian means to Christian nationalist end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713(1), 16-34.
- Ikenberry, G. J. 2018. The end of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94(1), 7-23.
- Inglehart, R., & Norris, P. 2017. Trump and the Populist Authoritarian Parties: The Silent Revolution in Reverse. *Perspectives on Politics*, 15(2), 443-454.
- Jacobson, G. C. and Liu, H. 2019. Dealing with disruption: congressional republicans responses to Donald Trump's behavior and agenda.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50(1), 4-29.
- Karpowitz, C. F., Monson, J. Q., Patterson, K. D., & Pope, J. C. 2011. Tea time in America? the impact of the tea party movement on the 2010 midterm elections.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44(2), 303-309.
- Keser, C., Garand, J. C., Xu, P., & Essig, J. 2023. Partisanship, trump favorability, and changes in support for trade.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54(1), 46-64.
- Klein, A. 2023. Capturing the media: Similarities between Viktor Orbán's and Donald Trump's media aspi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7, 21.
- Kölln, A. 2014. The value of political parties to representative democracy.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 593-613.
- Levitsky, S., & Ziblatt, D. 2018. *How democracies die*. Crown Publishing.
- Lin, S. 2016. The public costs of grand strategy in the trump era. *World Affairs*, 179(3), 4-23
- MacWilliams, M. C. 2016. Who decides when the party doesn't? Authoritarian voters and the rise of Donald Trump.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49(4), 716-721.
- Martin, J., & Burns, A. 2023. *This Will Not Pass: Trump, Biden, and the Battle for America's Future*. Simon and Schuster.
- Mead, W. R. 2017. The Jacksonian revolt: American populism and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96, 2.
- Merrill, S. and Grofman, B. 2019. What are the effects of entry of new extremist

parties on the policy platforms of mainstream partie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31(3), 453-473.

- Miller, G. J., & Schofield, N. 2008. The transformation of the Republican and Democratic Party coalitions in the U.S. *Perspectives on Politics*, 6(03), 433-450.
- Moynihan, D. P. and Roberts, A. 2021. Dysfunction by design: Trumpism as administrative doctrin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1(1), 152-156.
- Mudde, C., & Kaltwasser, C. R. 2017. *Popu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O'Hara, K. 2020. Burkean conservatism, legibility and populism.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26(1), 81-100.
- Ofstehage, A., Wolford, W., & Borrás, S. M. 2022. Contemporary populism and the environment.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47(1), 671-696.
- Patenaude, W. 2019. Modern American populism: analyzing the economics behind the silent majority, the tea party, and Trumpism.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78(3), 787-834.
- Pierson, P. 2017. American hybrid: Donald Trump and the strange merger of populism and plutocrac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8.
- Politico. (2024, July 17). A new kind of Republican Party is forming at the RNC. Politico. 출처: <https://www.politico.com/news/2024/07/17/rnc-republican-party-transformation-maga-00168933> (검색일: 2025. 07. 30.).
- Popkin, S. L. 2020. Crackup: The decline of party responsibility and the rise of political strongmen.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53(2), 363-374.
- Qerimi, V. 2016. Political parties and their role in the systems of government. *European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1(3), 39.
- Samuels, D. J., & Shugart, M. S. 2010. *Presidents, parties, and prime ministers: How the separation of powers affects party organization and behavi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ocpol, T., & Hertel-Fernandez, A. 2016. The Koch network and Republican Party extremism. *Perspectives on Politics*, 14(3), 681-699.

- Slaughter, S. 2019. Republican citizens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in a globalizing world. *The State and Cosmopolitan Responsibilities*, 300-318.
- Tanguay, L. 2022. Exit stage right: neo-liberalism, cable news and the persistence of Trumpism. *European Journal of American Culture*, 41(2), 109-126.

● 투고일: 2025.08.04. ● 심사일: 2025.08.05. ● 게재확정일: 2025.08.17.

| **Abstract** |

**Between Weakness and Will: The Republican Party's
Embrace of Trumpism**

Bae Jinseo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rumpism, blending populism and authoritarian extremism, has emerged as a deviation from traditional Republican conservatism. This study sees Trumpism as both a destroyer and inheritor of that tradition, focusing on how the Republican Party came to embrace it as mainstream. Two main interpretations explain this shift: one attributes it to institutional weakness within the party, while the other emphasizes strategic choices by party elites. The former created the conditions for Trumpism's rise; the latter shaped its trajectory. Rather than a sudden rupture, Trumpism reflects a gradual reorganization of conservatism. This study highlights how differing interpretations affect our understanding of party gatekeeping failure, elite responsibility, and democratic recovery. Ultimately, it argues that the Republican Party's ideological incoherence has legitimized institutional decay, making the restoration of party functionality central to reviving American democracy.

<Key words> Trumpism, Republican Party, Gatekeeping, Elite